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주치의

서울의료원 플러스+

2015.0708
vol.31

발행인 김민기

편집인 김현숙

기획·편집 홍보팀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전화 02-2276-7000

홈페이지 www.seoulmc.or.kr

서울의료원, 지역주민 대상 메르스 대응 과정 현장설명회 가져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사실상 메르스가 종식 되어 감에 따라 메르스 사태 이후 메르스 치료 의료기관으로는 최초로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대해 김민기 의료원장이 직접 메르스에 대한 서울의료원의 대응과정을 빠짐없이 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다. 메르스 기간 동안 의료원 인근지역 주민들이 가졌을 불안감과 두려움 등의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된 '메르스 안심설명회'는 지난 7월 23일,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평소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끌어가며 지역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대



표, 부녀회장 및 중랑구 통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주로 언론매체로만 접했던 메르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금까지 서울의료원이 메르스와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보고와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현장 답사로 진행됐다. 현황 보고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이 직접 그동안 기록해왔던 사진자료와 다양한 통계자료 등을 통해 서울의료원 메르스 대응과정을 설명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했을 국가 재난적 감염병에 대한 치료와 관리의 과정 및 원리를 상세하게 전달해 근거 없는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이어 메르스 기간 동안 운영되었던 격리병동과 선별진료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치료시설의 안정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추후 발생할 국가 재난적 감염병에 대한 치료기관 인근지역 거주에 따른 불안감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을 이해시켰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설명회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불안했는데 와서 직접 설명을 듣고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니 이번 메르스에 서울의료원이 체계적으로 대처하였고,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상황을 알게 되니 다음에 또 다른 전염병이 발병해도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믿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메르스가 종식되면서 물어두고 지나갈 수 있었을 법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니 신뢰감이 가고 든든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민기 원장은 "서울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서울의료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소통해야 한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지역주민들께서 크게 공감해주신 만큼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민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료기관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 5일간 의료기관 인증 자체 평가조사 실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7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5일간 의료기관 인증 2차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인증 자체평가는 국가인증평가의 기준항목 중 10개 장, 29개 항목에 대한 서울의료원 자체평가 조사지를 개발, 총 30명의 자체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치러졌다.

서울의료원 의료기관 인증 자체평가단은 지난 5월 26일 사전 교육을 통해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을 공유하였으며, 5일간 진행한 인증 자체평가는 실제 인증조사방법과 같이 직원면담, 환자면담으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자체평가 결과산출은 의료기관 인증원의 총족률 산출 방법에 근거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 총 29개 항목 중 28개 항목이 '상'을 받았으며 1개 항목은 '중'으로 평가받았

다. '중'으로 평가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과별 의료진 개별교육,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서장 책임하에 미흡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 자체교육 및 재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자체조사 결과 지침 개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지침 수정시 반영하여 향후 치러질 2주기 인증평가 준비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평가를 받고 전 항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 2011년 6월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후 연 2회 이상 중간 자체조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서울의료원 50여 일간의 MERS 기록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메르스는 온 나라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메르스 확진자는 180여 명이 되었고, 메르스 격리자는 1만 4천여 명이 넘어 시민들은 메르스의 공포 속에서 불안해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서 국가적 재난사태인 메르스 치료에 정면으로 부딪쳤고 5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고 치료 중인 환자가 있어 완전한 종식선언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를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확산방지를 위해 지내왔던 그간의 대응과정을 사진에 담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66 서울의료원,
메르스 확산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99



5.26 확진환자 입원



6.08 메르스종합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6.09 박원순 서울시장 격려방문



6.10 기자투어 진행



6.16 서울시의회 메르스
확산방지대책특별위원회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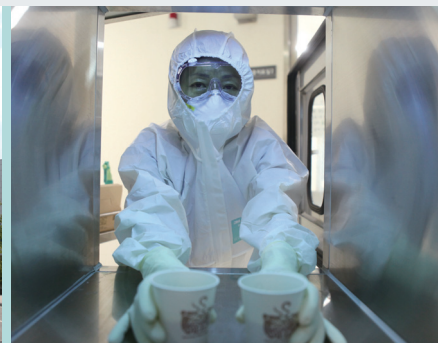
6.17 보건복지부 '메르스 치료병원' 지정



6.18 문재인 대표 방문



6.19 메르스국민안심병원 지정



6.25 다음뉴스편당
'커피타는 메르스 간호사' 연재



7.03 대한의사협회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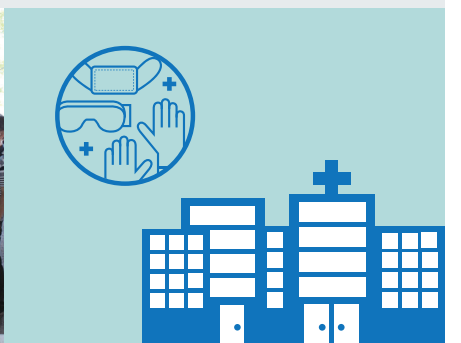
7.12 메르스확진자 전원 퇴원



7.23 지역주민대상 메르스 1차
안심설명회 개최



8.07 메르스 2차 안심설명회 개최





5월 26일 첫 메르스 환자 입원, 메르스 비상체제로 즉각 전환

서울의료원은 5월 26일(화) 메르스 감염자가 입원하자 즉각 전문 격리병동을 운영하고, 5월 30일(토) 간부대상 메르스 긴급회의를 소집, 메르스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서울의료원 전체를 메르스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6월 8일 서울의료원 메르스 총력 대응체제로 돌입

메르스 확진자 첫 입원 이후 10여일 만인 6월 8일(월) 메르스 총력체제에 돌입. 통합 컨트롤타워인 메르스종합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여 전 직원과 의료원 내 모든 시설을 통제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또한 선별진료실을 운영하여 모든 방문자들에 대한 발열검사 및 초기 문진, 의심환자에 대한 선별진료 유도 등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원내 감염관리를 강화하였다.



6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 각계각층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다.

박원순 시장이 임시천막을 세워 마련된 선별진료소와 음압시설이 설치된 전문 격리병동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메르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의료원을 방문했다. 이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메르스 입원환자들을 응원하고자 서울시의회 메르스 확산방지 대책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많은 분들이 서울의료원을 찾았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서울의료원 의료진들을 위해 많은 후원물품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메르스와의 사투에 힘을 보태 주었다.



6월 10일 서울의료원 전문 격리병동 운영현황 언론에 공개

예상보다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됨에도 메르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어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이에 6월 10일(수) 서울의료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전문 격리병동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각종 언론매체 취재진과 외신기자들이 몰려와 격리병동을 취재해갔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동 내 필수시설을 유일하게 갖춘 서울의료원의 격리병동과 메르스 환자 치료과정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6월 19일 보건복지부 지정한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서울의료원

앞서 서울의료원은 감염관리 능력을 갖추고 메르스 환자를 전담하는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지정받아 메르스 확진환자를 수용, 진료하였으나 철저히 격리된 음압격리실과 각종 요건을 충족하여 6월 19일(금) 메르스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대규모 병원 감염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도 감염위험이 높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으나 서울의료원은 내원객들의 감염노출에 대한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6월 25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메르스와 의료진과의 끊임없는 사투

메르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많은 취재진이 서울의료원을 찾아 의료진과 직원들의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이어 언론에서는 미처 공개하기 어려웠던 전문 격리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리기 위해 서울의료원에서는 다음 뉴스펀딩에 '커피 타는 메르스 간호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직접 전문병동 의료진, 완치 퇴원한 메르스 확진환자, 직원들의 인터뷰를 진행해 서울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전달하였고 뉴스펀딩을 본 독자들은 250여개의 응원 댓글과 직접 후원물품을 전해주는 정성을 보여주었다.



7월 12일 메르스 확진환자 전원 퇴원, 그 후...

전국 186명의 메르스 확진환자 중 23명의 환자를 치료, 7월 12일(일) 마지막 메르스 확진환자의 퇴원으로 격리병동의 가동을 안전하게 끝마쳤다.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중식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서울의료원은 메르스 치료기관으로서 최초로 그동안 불안에 떨었을 인근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메르스 대응과정을 빠짐없이 보고하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시간을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시민이 주인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메르스 기간 동안 묵묵히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지역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셔서 가능한 행사였다. 앞으로도 서울의료원은 메르스 기간 동안 받은 큰 응원에 보답하고자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서울의료원 신생아 중환자실 이야기

지원아
잘 자라줘서
고마워♡

980g의 작고 작은 아이, 지원이

‘980g’ 2015년 5월 4일 지원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몸무게다. 보통 임신 37주 이상이 된 아기를 만삭이라 하는데 37주를 못 채우고 30주만에 태어난 것이다. 손바닥만한 작은 몸으로 태어난 지원이는 힘든 호흡으로 인해 곧바로 기관 삽관이 되었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준비된 따뜻한 인큐베이터에 눕혀졌다.

보통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를 ‘이른둥이’라 부른다. 이른둥이로 태어난 신생아는 집중치료를 위해



인큐베이터에서 상당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임신 34주, 체중 1.7kg 정도가 되어 스스로 체온조절이 가능하게 되면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오게 된다.

다행이도 지원이는 빠른 호전을 보여 생후 3일째 호흡 곤란 치료를 위해 달았던 인공호흡기를 떼고 약물 공급이 아닌 위관을 통한 모유의 공급도 시작되었다. 자궁내발육 부전이 있던 아이라 보통은 수유 진행이 잘 되지 않는데 아기는 위관으로 들어오는 모유를 아주 잘 소화시켜 주어 생후 2주도 되지 않아 중심정맥관을 뺐다. 체중은 여전히 1kg이지만 ‘먹기만 하는 아기’가 되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 품의 기적

생후 5주째에는 아기의 빠른 회복과 엄마와의 정서적 유대 증진을 위해 매일 면회시간마다 ‘캥거루 케어’를 시행했다. ‘캥거루 케어’는 새끼를 엄마의 체온과 심장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엄마가 아기를 가슴위에 올려놓고 감싸 안아주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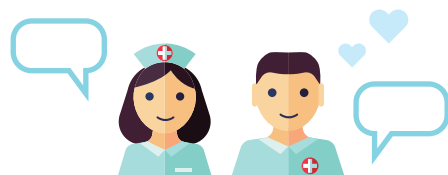
매일 엄마의 체온을 전달받은 아기는 무호흡이 있어 산소공급을 받고 간간히 수유 곤란으로 금식과 수유 제한

이 반복되긴 했지만 교정 연령 34주가 되어 처음으로 젖병도 빨아 보고 먹는 연습도 하게 되었다.

어느덧 아기의 체중은 1.7kg 되어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와 스스로 체온조절을 하게 되었고 위관을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젖병을 빠는 연습을 했다. 지원이가 태어난 지 50일 되던 날, 신생아 중환자실 식구들은 기특하게 잘 자라주는 지원이를 위해 깜짝 축하이벤트도 마련했다. 지원이가 세상에 나온 날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들을 담은 성장앨범도 직접 제작해 선물하였다.

생후 63일. 분만예정일을 1주일 남긴 지난 7월 6일, 지원이의 체중은 2.1kg이 되어 ‘세상을 향한 첫발’을 뗐다. 이제는 3시간마다 모유 45cc도 먹을 수 있으며 별다른 합병증도 없이 건강히 퇴원하게 된 것이다.

퇴원 당일에는 김민기 원장, 이인덕 간호부장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찾아 지원이의 퇴원을 함께 축하했다. 물론 앞으로 지원이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하는지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주기적으로 지켜보아야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 품에서 잘 자라줄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친절한 ‘수다간호사’
캠페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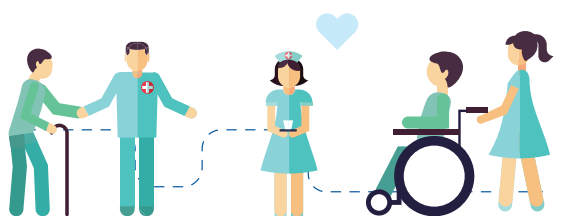
서울의료원 간호부(부장 이인덕)는 지난 7월 21일(화) 모든 병동 간호사실에서 친절한 ‘수다간호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메르스 발생으로 생긴 고객들의 병원이용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고 밝고 친절한 이미지를 드리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간호부는 ‘친절하게 응대하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간호사’라는 의미를 담은 수다간호사 문구가 새겨진 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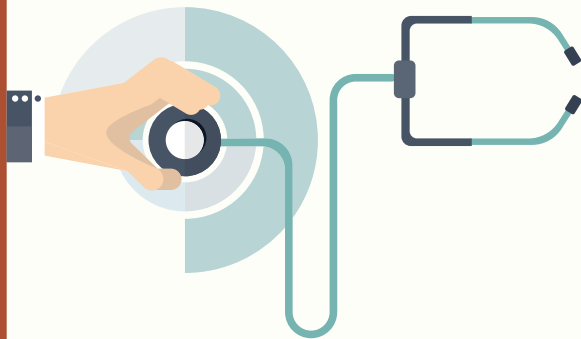
를 제작, 각 병동의 근무 간호사에게 달아주며 친근한 간호사 이미지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인덕 간호부장은 “수다간호사 캠페인을 통해 간호사와 환자 사이가 더욱 친밀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하반기에는 Best 수다간호사를 선정, 시상하는 행사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내 건강을 지킬 권리

홈리스 자활잡지 빅이슈 판매원, 서울의료원으로 건강한 나들이



7월의 어느 여름날, 서울의료원 건강검진 대기실은 빅이슈 판매원 40명의 웃음과 긴장으로 채워져 있었다. 검진을 받기 위해 가운데로 갈아입고 나온 판매원들은 어색한지 앞섰을 제대로 여미지 못하고 쑥스러워하기도 했다.

“검사도 검사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떨리네요.”라는 한 ‘빅판(빅이슈 판매원)’의 말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름대로 긴장을 풀려는 듯 농담을 주고받고 웃기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검사가 진행되었다.

사노피 파스퇴르가 주관하는 ‘빅프렌즈’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검진은 서울의료원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더욱 풍성해졌다.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이 시력, 혈압 같은 기본 검사는 물론 혈

액, 심장 기능 등 총 47개 항목으로 나누어 정밀 검진을 실시했다.

빅이슈 판매원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지만 염려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건강검진 이후 질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같은 사후 관리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노숙인 의뢰서가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또는 무료로 치료할 수 있지만 현재 빅이슈 판매원 대부분이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숙인 의뢰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빅이슈코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원의 거주지 구청에 치료 목적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를 마친 후 서울의료원 전문의들은 “하루 평균 한 끼의 식사를 하는 판매원들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은 규칙적인 식습관”이라며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치유되기도 했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위내시경 검사까지 마친 한 ‘빅판’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로 나왔다. 전날부터 금식을 해서 지칠 만도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한때는

모든 것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검진도 받게 해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빅프렌즈

홈리스의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홈리스 자립 지원 네트워크. 건강·일자리·주거·법률·의류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빅이슈코리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 및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 Sanofi Pasteur

글로벌 기업 사노피 그룹의 백신 사업 부문으로, 현재 백신 전문 업체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국내 백신 시장의 주요 공급원이다. 110년 넘는 오랜 백신 개발 역사를 자랑하는 사노피 파스퇴르는 매년 백신 제품 10억 도스 이상을 제공, 전 세계 5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제2회 정기총괄회의’ 개최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센터장 김규상)는 지난 7월 20일(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2015년 제2회 정기총괄회의’를 개최했다.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4개 지역에 개소되어 있으며,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서울의료원에 설치·위탁 운영 중이다. 정기총괄회의는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4개 센

터가 참석해 각 센터의 추진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직무교육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매년 3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김규상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각 센터의 상반기 사업보고 및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 △아토피피부염의 예방적 치료와 보습제(서울의료원 피부과 김현정 과장) △인증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현장평가 안내(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김우경 교수) △광역센터 운영 관련 논의 등 3시간 동안 진행 되었고, 이 동안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의 총평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김규상 센터장은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함께 전 국민의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선도하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건강강좌 안내



정신건강의학과 공개강좌 “조금 늦는 우리 아이 괜찮나요?”

· **일시**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 **장소** 서울의료원 4층 대강당

· 프로그램

10:30 ~ 11:00

정상발달과 발달지연의 개념과 이해
최진숙(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11:00 ~ 11:30

사회성 발달지연과 조기발견
박은진(인제대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1:30 ~ 12:00

사회성 발달지연과 문제 행동의 치료
서동수(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후원** 중랑구 보건소,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진료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진료협력기관에 직접 현장방문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서울의료원 진료협력실은 협력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결과에 대한 신속한 회신 및 전원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병원임과 동시에 지역중심병원으로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진료협력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보다 나은 진료협력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협력병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협력병원의 시설, 환경 등을 직접 경험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진료

협력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협력병원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12개 공공병원과 129개의 민간병원의 진료협력 담당자와 분기별 2회 이상 모여 사례중심의 정보공유, 전문의뢰 시 고충과 개선사항, 진료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100여명의 협력병원 담당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실제 협력기관을 방문하면서 해당 병원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방법을 모색하여 협력병원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진료봉사단, 폭염으로부터 노숙인 건강 지키기에 나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시산하 9개 병원 전문 의료봉사진으로 구성된 ‘나눔진료봉사단’과 함께 7~9월 약 3개월 간 폭염에 취약한 거리노숙인들을 찾아가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나눔진료봉사단’은 지난 2009년에 발족되어 의료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폭염기, 동절기에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번 폭염 대비 노숙인 응급구호방 의료지원은 서울역 하도 노숙인 임시쉼터에서 지난 7월 20일에 처음 시작하여 9월 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3시간(17시

~20시)동안 전문 의료진이 임시쉼터에 상주하여 문진, 투약, 외상에 대한 처치 등을 시행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 시산하 병원으로 연계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폭염의 경우 예방과 대비가 최선의 대응책이므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숙인들을 위해 폭염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해 폭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병원 소식

변화하는 공공의료,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힐링 체험 행사 마련 2015 공공의료와 친구되기 - 프렌즈워크 개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현정)은 오는 9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2015 공공의료와 친구되기 - 프렌즈워크'를 개최한다.

현재 공공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대다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가족과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으로 사회적 유대와 문화예술을 체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심리적 불안을 야기해 치료 의지를 상실하기도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동부병원)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곳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 본연의 well-being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인 치료를 위해 다채로운 문화예술이 포함된 공공의료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MUSIC, DANCE, PLAY, MOVIE, CARTOON' 총 5가지의 각 요일별 테마로 구성된다. '뮤지컬 비밥(BIBAP)', '국악예술단' 등 각 분야 유명 예술가들의 재능기부 공연 및 미술품복원전문가 김겸 박사의 '예술과 친구되기-피아노가 있는 미술이야기', 사상의학 이병삼 박사의 '동양의학과 친구되기', 영화감독 장진의 '영화이야기', JP 임종필 트레이너의 '몸짱과 친구되기' 등 전문가

들의 강연도 이어진다.

특히 이번 행사 주간에는 2010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열린 행위예술계의 대모 '마리아 아브라모비치'의 퍼포먼스 'The artist is present(예술가가 여기 있다)'를 재현하는 특별 퍼포먼스 'The doctor is present(의사가 여기 있다)'와 'The artist is present in east hospital(예술가가 여기 있다 in 동부병원)'이 열린다.

1분 동안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눈빛만으로 전달해, 이를 의사와 예술가가 환자와 함께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적인 공연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정혜신 박사'와 '만화가 허영만 화백' 등이 참여한다. 더불어 MBC 황선숙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프렌즈! 골든벨', 개그우먼 허민과 함께하는 'Celeb 자선 경매'도 열릴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김현정 원장은, "의료 소외계층은 곧 문화적 소외계층이기도 하다."며, "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건강증진에 앞장서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부병원 소식

조숙 원장 “재활병원 장점 · 공공의료 특성 모두 살릴 것”



지난 7월 21일 서울시 북부병원에 부임한 조숙 원장은 현대건강신문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조 원장은 서울시 북부병원의 장점으로 요양환자들에게 최적의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부병원은 바로 옆에 중랑숲 캠핑장이 위치하고 있어 요양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환경이다. 지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다. 훌륭한 재활의학센터를 갖춘 것도 환자들이 손꼽는 북부병원의 장점이다.

조숙 원장은 “재활의학센터에서는 뇌졸중이나 척추손상 등의 질환으로 급성기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재활전문가가 팀을 이뤄 개별화 된 ‘맞춤형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부병원 재활의학센터는 △운동치료 △인지재활치료 △연하치료 등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갖춘 것은 물론, 재활내과, 정신과, 신경과, 한방과 등과의 협진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조숙 원장은 “현재 북부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70%는 재활의료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며 “인근의

서울의료원, 국립재활원 등과 교류를 통해 재활센터를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의학센터뿐만이 아니다. 북부병원은 보건복지부지정 호스피스완화 전문기관이기도 하다. 호스피스완화 전문기관으로 전담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완화의료팀이 말기 암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능한 한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숙 원장은 “총 30병상을 운영 중에 있다.”며 “명상, 산책, 체조 등 암환자 요법과 가족모임, 종교 활동 등을 지원해 환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돌보는 총체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조숙 원장은 단순한 노인전문병원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 친화적인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북부병원은 처음에 노인전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노인 진료만 하는 요양병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리적으로 주변에 학교가 많고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의 질병 예방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현대건강신문 / 박현진 기자)

다사랑회 소식

힘을 내요~ 슈퍼 간호사!

올 여름은 특히 덥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은 메르스로 인한 사투와 순간순간의 긴장이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더해져 더욱 '핫' 뜨거워진 듯합니다.

이비인후과 간호조무사 김순옥 님이 한 번 더, 급여나눔으로 기존 후원금의 10배인 1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다음카카오 뉴스펀딩의 '커피 타는 메르스 간호사' 기사를 보고 응원의 마음을 담아 기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마음도 슈퍼파워~입니다.

그리고 우리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 故염의석 님이 1천만 원을 다사랑회에 기부했습니다.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준 것입니다. 고인은 101병동과 131병동에서 함께했던 간호사들과 송숙희 과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선물했습니다. 전해주시는 기부금은 공익의료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들어보셨쥬?
다.사.랑.회. 여러분이 함께
‘동행’ 해주세요.



다사랑회는 2004년, 우리 서울의료원 직원들이 첫 단추를 끼워 지난 10년간 저소득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사단법인 다사랑회는 <서울의료원 공익의료발전 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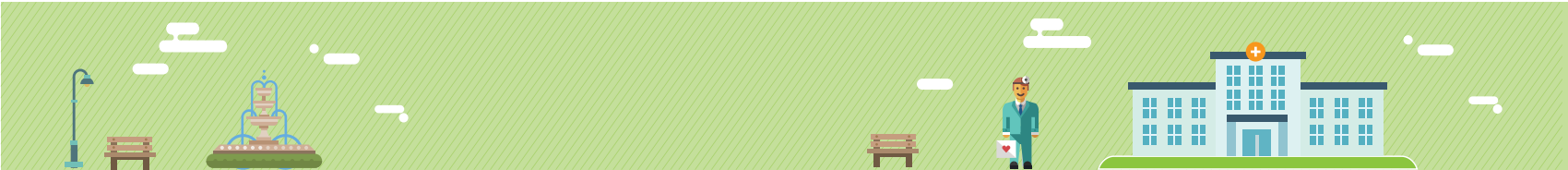
후배를 양성하는 차세대 공익의료인 장학사업, 공익의료인 상 제정, 누구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건강시민캠페인 등의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꾸준한 후원회원으로 함께해 주시고, 후원금 증액으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문의

전화 02-2276-8198

이메일 dasarang.khj@gmail.com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06.01 권정미 92병동	06.01 송 불 91병동	06.01 송하연 102병동	06.01 유예원 111병동	06.01 유은주 101병동
06.01 이민지 1102병동	06.01 장 미 의무기록팀	06.01 조은비 91병동	06.01 오현아 치과	06.01 윤채민 영상의학과
06.01 김호영 재활의학센터	06.02 김기남 총무팀(총무)	06.03 김은미 응급센터	06.03 팽한솔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	06.05 강인숙 식당
06.08 이진주 진단검사의학과	06.08 김현숙2 보험심사팀	06.15 김승호 재활의학센터	06.22 김상민 정형외과	06.25 최은수 식당
06.29 김경애 42병동	06.29 박미숙 112병동	06.29 윤순희 112병동	06.29 최은향 112병동	06.29 천준호 강남분원
06.29 윤순희 112병동	06.29 최은향 112병동	06.29 천준호 강남분원	06.29 강병국 병동간호팀	07.01 유동현 112병동
07.01 옥준호 병동간호팀	07.01 이정희 91병동	07.01 김하연 진단검사의학과	07.01 김은경2 흉부외과	07.01 배상욱 병동간호팀
07.01 송문석 진단검사의학과	07.01 정광수 병동간호팀	07.01 주광식 중앙공급팀	07.01 홍성길 병동간호팀	07.01 현재경 의학연구소
07.03 이유진 응급센터	07.03 박성원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	07.06 이은선 의학연구소	07.13 유승정 응급센터	07.15 송형식 병동간호팀
07.16 양창승 의료정보팀	07.16 조윤신 흉부외과	07.16 서정희2 시설관리팀(시설)	07.17 노양숙 식당	07.24 최미선 의무기록팀
07.27 홍주영 건강증진센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06.03 정정숙2 시설관리팀(시설)	06.07 김진희 신경과	06.10 김보람4 신생,분만	06.10 심인숙 식당	06.12 김리라 111병동
06.17 이연식 병동간호팀	06.17 전성길 병동간호팀	06.18 조윤경 시설관리팀(시설)	06.21 이정휘 의료정보팀	06.30 함수경 신경외과
06.30 박성길 신경과	06.30 이희재 응급센터	06.30 박다영 인공신장실	06.30 김미현2 수술실	06.30 오민호 정형외과
06.30 이지연1 112병동	06.30 김유라1 91병동	06.30 송지은 수술실	06.30 이진배 71병동	06.30 최태열 71병동
06.30 옥준호 병동간호팀	06.30 송문석 진단검사의학과	06.30 유한준 중앙공급팀	06.30 서낙원 원무팀(사업)	06.30 유동현 112병동
06.30 서희경1 42병동	06.30 조미상 91병동	06.30 정정숙 112병동	06.30 김수현 112병동	06.30 나효순 91병동
06.30 배상희 외래간호팀	06.30 김계동 병동간호팀	06.30 김연숙 81병동	06.30 오 현 병동간호팀	06.30 정종화 강남분원
06.30 서범일 병동간호팀	06.30 홍성길 병동간호팀	06.30 김금복 시설관리팀(시설)	06.30 김만집 강남분원	06.30 주광식 중앙공급팀
06.30 신삼순 시설관리팀(시설)	07.03 양미숙 시설관리팀(시설)	07.06 이란영 식당	07.08 허연오 간호부	07.10 이나은 영상의학과
07.16 김주영 신경중환자실	07.14 이정순 92병동	07.20 강은영 92병동	07.21 박보름 42병동	07.26 홍주영 건강증진센터
07.29 김민형 아토피천식센터	07.31 천명연 시설관리팀(시설)	07.31 강연호 건강증진센터	07.31 김현숙2 보험심사팀	07.31 문창익 병동간호팀
07.31 최광란 112병동	07.31 윤희준 102병동	07.31 윤옥현 92병동	07.31 고미경 신경중환자실	07.31 구지혜 내시경실
07.31 이미소 내과	07.31 황선화 101병동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06.07 박원철 총무팀	06.13 문서영 82병동	06.20 정준식 재활의학센터	06.20 장서영 재활의학센터	06.27 조미래 아토피천식센터
06.27 김성령 신경중환자실	07.12 최문영 교육연구부			

학회 및 연수

기간	진료과	참석자	방문국	목적
06.04~06.10	내과	김태호	미국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75th Scientific Sessions 포스터 발표
06.06~06.14	가정의학과	이수형	노르웨이	오슬로국제 HPH(health promoting hospitals & health services) 참석
06.10~06.14	내과	최병웅	이탈리아	Annual European Congress of Rheumatology EULAR®2015 포스터 구연발표
06.13~06.18	신경과	안진영	미국	1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kinson's Disease and movement disorders 참석 및 연구결과 발표
06.13~06.21	정형외과	김정환	이탈리아	제20회 유럽수부외과 학회 초록 발표
06.27~07.04	신경과	김지은	캐나다	2015 Peripheral nerve society biennial Meeting 참석 및 연구결과 발표
07.01~07.03	이비인후과	정준희	일본	30th Politzer Society Meeting 참석
07.03~07.13	신경과	허재혁	프랑스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erebral vascular biology 초록 발표

서울의 10대 야경명소를 찾아주세요!



서울시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과 생태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에는 빛의 질제를 통해 정온한 밤을 조성해 나가고 관광특구 등 상업지역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빛의 구현을 통해 관광수요 창출과 시민 여가 선용의 장으로 마련코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간 관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경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함께 관광명소를 조성해 나가고자 시민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공모내용
- 주제1. <야간경관 조망지점 찾기(10개소)>
- 주제2. <야간경관 체험노선 찾기(10개소)>

▶▶▶ 공모기간

2015. 8. 20 ~ 2015. 9. 16(4주간)

- ▶▶▶ 응모방법
- 서울시 공모전 홈페이지
- '내 손안에 서울(www.mediahub.seoul.go.kr)' 접수
- ※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